

직업성 암, 전체 5~10% ... 의심되면 '직업병안심센터'로

국가암등록 통계, 2000년 10만명→2010년 20만명→2020년 25만명
중피종 최고 100%·폐암 29%·백혈병 5% 원인 제공...사망도 증가 추세
벤젠 노출, 혈액암 발생 원인 부상...조선대병원, 광주·전남북·제주 관리

우리나라 새로운 암 발생자는 국가암등록 통계에 의하면 2000년 이전에 10만명 수준에서 2010년부터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0년 24만800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482.9명이 발생한다. 암으로 인한 5년 암유병자 수는 2020년 90만 800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769명, 사망자는 8만2000명으로 매년 암 발생자와 유병자, 사망자 수가 늘고 있어서 주변에서 암 환자를 흔히 볼 수 있다.

암 발생의 원인은 다양한데, 이중 직업적 활동에 의한 암 발생자는 어느 정도일까? 국제암연구소(IARC)가 실시한 역학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직업적 요인은 전세계 모든 암 발생의 약 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 비율은 암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른데, 가장 많게는 중피종의 경우 80~100%, 폐암은 15~29%, 백혈병은 5% 정도다.

이러한 추정치라면 폐암의 경우 2020년 우리나라 폐암 발생자 2만9000명 중 최소 4350명에서 최대 8410명이, 백혈병은 발생자 3600여명 중 180명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암 중에서 예방이 가능한 직업적 요인에 의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알 수 없다.

국제암연구소 추정 비율에 따르면 매년 1만2000에서 2만4000명이 직업성 암일 가능성이 있지만, 산재보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직업성 암으로 요양 신청한 사례는 4% 수준인 477건일 뿐이며, 이중 70.2%인 335건만이 인정되었다. 암 발생자 중 극히 일부만 산재요양 신청하기에 발생 규모를 알기 어렵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업관련성 질병의 발생과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국 10개 병원에 '직업병안심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광주 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인 광주시와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 지역은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직업병안심센터에 보고된 직업성 암 30건 중에서 특이한 사례는 A자동차 도장공정에서 5명의 혈액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중 9월에 4명이 산재요양 신청해 1명이 인정받았고, 나머지 3명은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1명은 뒤늦게 산재요양 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번 사례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혈액암 발생 원인으로 널리 알려진 벤젠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이다. 회사 측은 사용 중인 페인트(물집안전보존 자료 기준) 등에 벤젠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병안심센터장이 자동차공장 집단 혈액암 발생의 원인 조사에 앞서, 노동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은 사용 중인 희석제 등을 자체 의뢰해 정밀 분석한 결과 미량의 벤젠이 포함돼 있고 사용량이 많으며, 또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장 작업 부서 90여 명의 소변검사에서 벤젠 대사물이 높은 농도로 나오므로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직업병안심센터장 이철갑 교수는 "최근의 미국 산업위생협회(ACGIH)는 그동안 추가된 여러 연

구를 검토해 골수에 독성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벤젠의 관리농도를 0.1 ppm에서 1/5 수준인 0.02ppm(20 ppb, 우리나라 대기 관리기준 농도는 5ug/m³=5.8 ppb)로 낮추어 발표했다"며 아주 낮은 농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더 나은 자동차공장뿐만 아니라 유성 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심지역의 여러 자동

차 정비업체 노동자, 건물의 도색작업 노동자, 조선소 도장공 등은 모두 혈액암 발생의 위험직종이라며, 혈액암뿐 아니라 직업성 암이 의심되면 직업병안심센터를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직업성 암이 의심되면 조선대병원 직업병안심센터(1588-6798, 062-229-7835)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문화예술 보조·지원사업 빨라진다

지역문화단체와 개선 특별팀 구성...공모 시기·심사방식 등 조정

광주시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보조·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선안은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통합공모가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시기를 조정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 통합공모 심사방식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통합공모 시

기가 중복되는 바람에 일부 문화예술단체들이 공모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통합공모 심사 방식도 개선된다. 문화예술분야 보조지원사업 개선 특별팀은 면접 심사 때 사업에 대해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계획서 발표 위주의 기존 면접 심사 방식을 인터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과 예술인이 '팔길이 원칙'을 서로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발전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팔길이 원칙'은 '팔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의미로, 예술활동에서 행정기관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광주문화재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 등과 함께 '문화예술분야 보조·지원사업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총 8회에 걸쳐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정착 외국인 주민 생활 불편 개선

도정 모니터링단 간담회...법률상담 등 소통 창구 역할도

전남도가 외국인주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 정책·사업 등에 대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4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하반기 간담회를 영암군과 지난 28일 공동 개최했다.

공개 모집과 사·군 추천으로 선발된 4기 도정 모니터링단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네팔,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국적의 통·번역사, 이중 언어코치, 결혼 이민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도정모니터링단은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외국인 주민이 전남

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외국인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외국인주민 모국어뉴스 제공 등 전남의 외국인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전남도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은 2019년, 영암군정 모니터링단은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 및 양육 지원, 외국인 무료 법률상담 및 의료서비스 홍보 확대,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 희망 등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강기정 시장 "금형, 고부가가치화 지원"

광주시 정책소품...기업들 "인력 양성·해외 개척·자동화 지원 필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북구 첨단산단 내 금형기업인 ㈜상오정밀에서 '정책소품'을 열어 지역 뿌리기업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정책소품에서 자동차 전장부품용 몰드금형과 가전기능부품, 광통신금형을 제작하는 상오정밀의 박상오 대표와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최병철 상근부회장 등과 뿌리산업 기업이 당

면한 경제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상오 상오정밀 대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해외판로개척 지원 활성화, 인력 양성, 공장 자동화 등이 필요하다"며 "예전에는 광주시가 많은 도움을 준 덕분에 광주 금형업체들이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지원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오랜시간 광주경제를 지탱해왔던 뿌리산업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제조로봇 도입 등 제조환경 및 공정 개선과 같은 뿌리산업 첨단화,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뿌리산업은 광주 대표산업인 인공지능(AI), 자동차, 전자산업 등 전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금형, 용접, 사출·프레스 등 14대 기반산업을 포함하는 대표 후방산업으로, 지역 내 뿌리기업은 2890여개사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력문제와 시장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김병수 전 동구 부구청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광주환경공단 제9대 이사장에 김병수 전 동구 부구청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1월 28일까지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경과 보고서를 채택, 광주시에 송부했다.

김 이사장은 광주시 교통안전과장과 대변인, 광

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등 37년간 광주시에서 근무했다.

김 이사장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유사업 전문화 등으로 혁신 경영을 실현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